

오늘의 기사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행사 (23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정재(광주교육대 교수)씨가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에 관해 강연.
▲제 49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참여정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
▲21세기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 문화회관 대공연장. 최윤희(카프리라이터)씨가 '마음만 바꾸면 나도 백만장자'라는 주제로 강연.
▲제 7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오전 11시 목포 호성예당문화원.
(24일)
▲6·25전쟁 제 56주년 기념행사=오전 11시 광

주시민회관.
▲루미나리에 거리 토요 이벤트 공연=오후 8시 목포 극장 앞 사거리.
▲제 17회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컴퓨터 경진대회=오전 10시 호남대 관산캠퍼스 4호관. 초등학생 543명·중학생 241명·고등학생 491명 신청.
▲Mpia 정기연주회=23일(금) 오후 7시30분 목포문화회관 공연장.
▲주부 인형극단 인형극 정기공연=23일(금) 오전 10시10분 광주 향토문화센터 2층.
▲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기억의 향기(가야금·타악)'=23일(금)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김은영·박명숙 피아노 듀오 연주회=24일

(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뮤지컬 '어린 왕자'=24일(토) 오후 2시, 4시 목포문화회관.
▲제 315회 토요 민속여행=24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한마당 춤사위로'라는 주제로 남도민요·단막 창극·판소리·진도 북춤 등 공연.
▲지산갤러리 기획전 '정재형 초대전'=7월5일까지 지산갤러리.
▲수미회전은=28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대학미전=7월26일까지 롯데화랑.
▲'필레꽃 그리운 날엔'소빈 개인전=30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월드컵 대구광주 New Vision 모색전 III =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미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H-MAX 정기 회원전=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송규'전=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역사속의 오늘

▲쿠베르탱, 파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설립(1894)
▲프랑스의 극작가 장 아누이 태어남(1910)
▲팔리크 소련 유엔 대사, 휴전회담을 제의(1951)
▲베를린장벽 최초해방자 추도식, 서독서 거행(195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에 관한 6.23 선언 발표(1973)

뉴스퀴즈

17. 2006 독일월드컵 한국축구 대표팀이 지난 13일 토고를 상대로 월드컵 사상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이 2대 1로 승리를 거둔 뒤 인터넷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 대한 칭찬과 동영상들이 실재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날 동점골을 넣었고, '반지 세레머니'로 유명한 이 선수는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안정환 ② 이을용 ③ 박지성 ④ 설기현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상 정보와 장마철 건강 관리 등에 관심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부쩍 늘었다. 여름철 차량 점검 요령이나 옷차림·집안 청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는 네티즌들로 장마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월드컵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한국과 프랑스전은 새벽 4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수십만명이 몰려나왔고 박지성의 동점골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하자 광주의 전남대 후원은 붉은 물결로 열광의 도가니를 이뤘다. 특히 한국-프랑스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일궈내면서 박지성의 인기는 폭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박지성과 관련된 글·사진들이 오르내렸다. 네티즌들은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팀과 자신을 함께 상승시키는 힘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등 그가 한 말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박지성 어록'

'차두리 어록' '박지성 어록' 눈길

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초등학교 시절 일기도 축구에 대한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다. 또 월드컵과 관련, 솔직한 해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두리 선수에 대한 클릭 세례도 잇따랐다. 차두리 어록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두리는 지난 12일 일본-호주 경기에서도 "2002년 한국과 미국의 경기에서도 한국이 0대 1로 리드당하는 상황에서 전반을 마쳤지 않습니까. 당시 하프타임 때 히딩크 감독의 특별 지시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라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질문에 "당시 저는 후보여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후보 선수는 밖에서 몸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라커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라고 솔직하게 답해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13일 한국-토고 경기 해설을 앞두고 "오늘 독일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질문에 "아무래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으니, 박

주간 금상금 검색어

Table with 2 columns: Rank, Keyword. Includes terms like '장마', '프랑스전', '이승연', '차두리어록', '박지성어록', '북한미사일', '프랑스전', '청안', '김정철', '하늘이서어'.



'강도 자작극'으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정안.

광주전남지역바둑대회 제15회 光日盃. Includes a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table of prize money for different ranks.

바둑소식. 운준상 4단, 4연승 실재. 운준상 4단이 최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 연승회강전 본선에서 박병규 5단에게 17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3연승을 올렸다.

바둑소식. 운준상 4단, 4연승 실재. 운 4단은 곧바로 온소진 3단과 대결을 벌였으나 온 3단에게 262수 만에 9집 반으로 겨우 4연승에는 실패했다. 온 3단은 이정우 5단을 상대로 연승 도전에 나선다. 현재 결선에는 윤준상, 이영구, 진동규, 박정삼, 허영호 등 5명 올라있다. 오스람 코리아배 연승회강전은 제한시간 각자 10분, 초읽기 30초 1회가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1천800만원(준우승 700만원)이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28 lunar mansio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birth dates and lucky/unlucky numbers.

굿모닝 잉글리쉬 <674> Never say that again.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나. A: He's a real jerk. I can't stand him. B: Never say that again, for heaven's sake! He means well.

오하이오 니혼고 <674> プリベードカードがあったら、重寶ですよ. 프리패드카드가 있으면 편리해요. A: 日本の電車や地下鉄に乗るとき、プリベードカードがあったら、重寶ですよ.

니하오 풍구워 <392> 这个周末你要做什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A: 这个周末你要做什么? B: 我要去和家人一起去游泳, 你呢? A: 我得参加朋友的婚礼.

한자 이야기 <992> 車票(차표) 수레 차, 표표. 차(車)는 바퀴를 축으로 고정시킨 이륜(二輪) 수레를 나타낸 것이다. 표(票)의 이체자는 표(票)이다. 요(要: 가는 하리)의 약자+화(火)로, 작은 불씨가 가볍게 날아오르는 모습이다.